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이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 해결 적임자"

전북 광역·기초의원 45명,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45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성경찬(고창) 전북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양극화로 불안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낙연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민주정부 4기의 시대적 과제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밝혔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이을 것이냐, 아니면 낡고 퇴영적인 구시대로 회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그 길에는 역사의식이 뚜렷한 정치인,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퇴영적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후보만이 본선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며 "최장수 총리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던 이낙연 후보를 오늘 참여한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으며, 그 대전환의 시작은 전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참여한 광역의원은 성경찬·김만기(고창), 황영석·나인권(김제), 문승우·김종식·나기학·조동용(군산), 최영일(순창), 김희수 의원(전주) 등 10명이다.

기초의원은 김영일·김경구·서동수·우종삼·이한세·조경수·박광일·나종대·신영자·최창호·김경식·김중신·지해춘·김우민·김영자·송미숙(군산), 양희재·손중열(남원), 임정호·조규철·김미란·김영호·차남준·이봉희·이경신(고창), 최낙삼(정읍), 신갑수(진안), 이성재·이명로·장종민·신대용(임실), 신용균·조정희·이기자·송준신(순창) 등 35명이다. /유호상 기자

포토뉴스 - 도내 곳곳 민주 대선 경선후보 지지 잇따라

"2022명이 함께 합니다" 권희철 '이세바(이재명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전북연대 상임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 권리당원들, 시민 등 2022명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사람 중심 노동 존중 실현" 한국노총 전국 건설산업인 노동조합 전북본부가 16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사람 중심의 노동 존중을 실현할 후보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 표명에 나섰다.

"우리에게 필요한 후보" 전북청년 918명 일동이 16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김제·부안 2,054명을 대표로 고영선 기본국가김제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3박 4일 호남 민심에 '올인'… 군산부터 시작

민주 박용진 의원, 지지 호소 나서기로… "호남 민심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오는 2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박 후보는 호남 전역을 방문하는 동안 전북, 광주, 전남 곳곳을 방문해 귀성 인사, 코로나 의료진 격려,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박용진 후보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DJ의 뒤를 잇는 유능한 진보 대통령이 돼서 호남의 새로운 100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군산에서 민생탐방에 나선다.

20일 오전 9시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 뒤 10시 30분 새만금 33센

터를 찾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빅플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전주로 이동,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을 방문해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또, 청년사회적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전주 핵심당원들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

전북 장수 출신인 박용진 후보는 추석 당일인 21일 아침에는 고향인 장수군 선산에서 성묘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후, 장영수 장수군수와 차담을 한 뒤 장수읍 소재 논개사당을 찾아 참배를 하고, 논개선양회원들과 간담회를 갖은 후 고창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계획이다.

22일에는 광주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10시 광주 기독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코로나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격려한다.

이어, 오후 1시30분 전남도청 앞 김대중광장을 방문한 뒤 목포 지역인사들을 만나고, 오후 4시에는 보성 청년 일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호남투어 4일째인 23일에는 오전 10시 30분 나주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 노동조합 의장단 및 조합원 간담회를 한다.

이후 광주로 이동, 오후 5시 30분부터 방송되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호남권 TV토론에 참석한다. /유호상 기자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두세훈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통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규정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두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도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연수 지원, ▲지식재산교육의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내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식재산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지자체별 특정 지역서 음주운전 사고 집중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 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나롤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